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Special Theme

메세나, 시민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창동예술촌 예술학교
진주통합시우회 시조교실

Volume

21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GYEONGNAM MECENAT

Vol. 21

발행인 손교덕

편집인 한동진

진행 김은아

발행일 2016. 08. 15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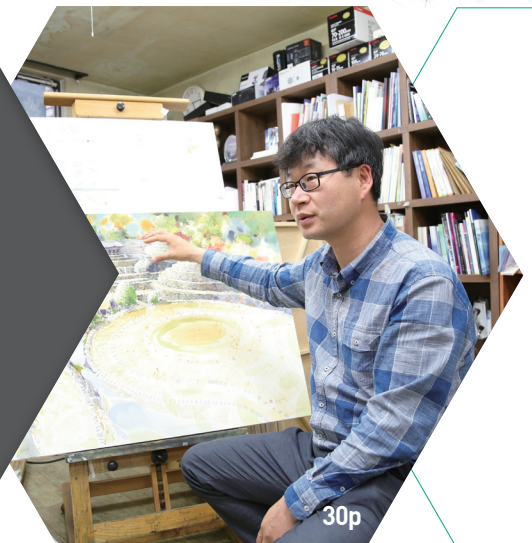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3층

연락처 Tel. 055 285 5611 Fax. 055 274 1923

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기획·디자인 (주)아트인시티 Tel. 055 262 2116

※이 책은 경상남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VER STORY

피아니스트 이주은

원현국립대 및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솔리스트과정을 수석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주은은 곡에 대한 뛰어난 해석력과 유려한 테크닉으로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다.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하여 루마니아 바카우 필하모닉, 독일 바이에른 필하모닉, 창원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으며, '2012 바이에른 예술가 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 음악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Message	04 회장 인사말
Special Theme	06 시민예술교육 - 창동예술촌 예술학교 10 시민예술교육 - 진주통합시우회 시조교실 12 시민예술교육 - 경남예술단체 시민예술교육
메세나 칼럼	14 문화의 힘! 콘텐츠 파워 - 장효익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아름다운 동행	18 한국아나세 - 경남 기업미술관 제1호 '금강미술관' 개관 20 센트랄 - 청년작가들과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미술대회' 개최 22 코앞건설 - 나눌수록 커지는 공간기부

CONTENTS

Special Theme

메세나, 시민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창동예술촌 예술학교
진주통합시우회 시조교실



Interview	24 산골농장 이상호 회장 - 산골박물관 개관, 산청문화 보존에 나서다 28 부곡스파디움 따오기호텔 안영조 회장 - 창녕에 예술이 샘솟게 하다 30 수채화가 신종식 -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경남 100경 100작展' 개최 32 피아니스트 이주은 - 열정의 피아니스트, 브람스를 연주하다
엔조이컬처	34 오스트리아 문화예술기행 I - 예술도시 빈
결연단체 활동	40 메디치회 - 한국미술을 세계로 42 합천예총 - 숲속의 작은음악회 43 거창합창단 - 희망을 전하는 합창단
메세나 소식	44 경남메세나 포럼 - 생태문화도시 순천 탐방 48 찾아가는 메세나 - 고성공룡엑스포 공연
메세나 단신	50 2016 정기총회 51 예술단체 워크숍 / 임원간담회 52 문화나눔 - 행복한 나눔공연 53 기업과 예술, 결연의 현장

Greeting Message

삶과 예술을
연결하는 '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메세나협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손교덕 경남은행장입니다. 지난 9년 간 경남메세나가 지역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앞장서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메세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올해 경남메세나는 매칭펀드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예술단체 119개 팀이 결연을 맺으며 전년도 대비 결연비율이 25%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예술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메세나 혜택의 폭이 경상남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까이 예술 후원에 나선 메세나 기업인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건네는 예술인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에 창간한 홍보지 '경남메세나'가 21호 발간을 맞았습니다. 이번호 특집기사의 주제는 경남예술인들이 주도하는 '시민예술교육'입니다. 경남의 많은 예술단체들이 예술의 문을 활짝 열어 누구나 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이해하고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 날수록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감수성과 유연함이 더해져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예술교육처럼, 삶과 예술을 연결하는 '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열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희망과 상생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요.

2016. 8. 15.

경남메세나협회장 

메세나, 시민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한 때,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이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시민예술교육을 통해
원하면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예술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자.

01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창동예술촌 예술학교

02

우리소리의 매력을
알리는 시조교실

03

경남예술단체들의
시민예술교육

창동에 불어오는 새 바람, 새 문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창동예술촌 예술학교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구본수



사람이 찾지 않아 생명력을 잃어가던 도시에
'예술'이라는 꽃씨 하나가 날아들었다.
예술가들은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싹트기를 기다렸다. 여기에 시민들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이곳에 예술이 꽃 핀다.

예술은 그 자체로 빛나지 못한다.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느끼는 행위들로 인해 그 사람 안에 감동의 스위치가 켜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어떤 예술도 공유와 공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시민예술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들만의 전문 분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시민들은 예술에 대해 더 잘 해석하게 되고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예술가들이 생산해 낸 문화의 소비자로, 또 예술의 생산자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산 창동에서는 창동을 부흥시키고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민예술교육이 한창이다.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에서는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욕망을 해소시켜 주고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창동예술촌 예술학교'를 열어 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다.

창동예술촌은 마산 창동의 원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예술가단체다. 하지만 예술가들만 드나들어서는 제대로 된 도시로 성장하기 어렵다.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문화를 함께 즐겨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예술학교'를 생각해 낸 것. 이를 통해 시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창동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을 했다.

창동예술촌과 화영철강, 두 남자의 의기투합

창동예술촌 예술학교는 지난 해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에

서 주관하고 화영철강(주)김장희 대표가 메세나 매칭펀드 결연사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첫 번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화영철강 김장희 대표는 창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온 마산 토박이다. 한 때 번성했던 도시가 쇠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창동예술촌 라상호 대표와 뜻이 맞았던 것.

“제가 창동에서 살았는데 제가 다니던 길, 통학하던 곳, 놀던 곳이 지금은 쇠락해 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업가로서 다른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제 고향 창동에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책임감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낍니다.”

창동이 김 대표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 창동예술촌 라상호 대표에게 창동은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준 제 2의 고향이다. 47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단 한순간도 창동을 떠난 적이 없는 라 대표에게 이곳은 꿈꾸는 곳이고, 또 꿈을 이루고 싶은 곳이다.

“제가 처음 창동에 왔을 때는 서울 종로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부흥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창동갤러리에서 만난 화영철강 김장희 대표와 창동예술촌 라상호 대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죠. 지금 창동예술촌이 창동을 살리기 위해 문화예술 부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를 매개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기업가와 예술가로, 마산 토박이와 외지인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창동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의기투합해 예술학교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 시작은 힘들고 벅차지만 이렇게 초석을 다져 놓으면 앞으로 다른 누구라도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거리 곳곳에 예술이 흐르는 작은 발표회

지난해 예술학교를 마친 후 창동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다. 예술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창동 거리에서 작은 발표회를 마련한 것. 그동안 그렸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고, 카메라 수업에서 찍었던 사진과 시를 전시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향긋한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면서 마련한 작은 무대. 이날 졸업식에서 화영철강 김장희 대

표는 명예교장 자격으로 졸업생들에게 수료증을 건넸다. “제가 수료생들에게 수료장을 건네주는데 수료생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술학교에 후원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기쁨을 찾아주는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뿌듯함을 느낀 것은 김 대표만이 아니었다. 이 작은 발표회를 지켜본 창원시에서 창동예술촌을 위한 후원을 약속한 것. 덕분에 올 상반기 예술학교는 창원시의 후원으로, 하반기 예술학교는 화영철강의 후원으로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창원시가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창동예술촌과 예술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칠하면, 나도 예술가

예술은 머나먼 일이라 생각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리고 색칠하는’ 작은 시도를 통해 시민들은 이미 예술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지난 4월, 창동예술촌 교육관에서 민화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Art Education School



지난해 연말 창동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 음악과 시와 커피의 향이 흐르는 기쁨의 자리에서 졸업생에게 수료장을 건네는 명예교장 김장희 대표의 기쁨은 더욱 컸다.



시민 예술가들을 만났다.
 아직 창동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북적거리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창동예술촌 교육관이었다. 오늘 이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민화교육이 진행된다. 삶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민화교실을 찾은 시민 예술가들은 지난 시간에 스케치했던 그림 위에 채색을 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주 여성들을 데리고 교육에 함께 참여한 인솔자는 이주여성들이 특히 민화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주여성들은 예술교육이란 걸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배우면서 예술도 접하고 우리 전통문화인 민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날 시민 예술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민화교실을 찾은 김장희 대표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직접 그림을 그려보라는 요청에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은 김 대표도 학창시절 미술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예술’을 몸소 실천했다. 다른 사람의 작품에 행여 누가 될까 섬세하게 그려 나가는 손을 보니 오랫동안 기업가로 살아온 김 대표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술가의 혼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창동예술촌 예술학교는 서양화, 민화, 인문학, 플루트 등 8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화영철강의 도움으로 10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예술학교를 통해 가르치는 과목의 수가 많아질수록 창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배출되는 시민예술가들도 늘어날 것이다.

생명력을 잃어가던 도시 창동에
 ‘예술학교’라는 꽃씨가 날아들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노력과
 기업의 후원, 시민들의 관심으로
 이곳 창동에 예술의 꽃이, 핀다.



전통의 소리 '정가(正歌)'를
계승하는 진주통합시우회

우리 소리의 매력을 알리는 시조교실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김규남, 진주통합시우회

우리가 몰랐던, 정가의 매력 —————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
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고 또 읊어도 봤을
시조. 이 시조가 정가를 만나면 편안하고 정갈한 느낌의 평시조 시조창으로 다시 태
어난다. 시조의 운율에 선율이 입혀지면 단순히 시조를 읊었을 때보다 부르기에,도,
듣기에도 정감 있는 음악이 되는 것.

정가는 시조, 가사, 가곡, 시조창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 민족이 만들어 낸 우리만의
고유한 소리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중독성이 강한 빠른 박자의 음악이 들어오면
서 정가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요즘에는 정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알더라
도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이유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다. 또 간혹 정가를 배
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주에 가면 정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 (사)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진주통합지부(진주통합시우회)에서는 시조창
을 배우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2016년 진주통합지부 시조교실'을 열어 정가의 보급
에 힘쓰고 있다. 시조교실은 진주 신안동에 위치한 시조회관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열리며, 매주 화, 금, 토요일에 각각 50~60명의 시민들이 시조, 가곡, 가사 등 우리
고유의 소리를 배우고 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설지만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아련한 느낌의
시조창 소리가 들려왔다. 요즘은
흔히 들을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혼에 내재돼,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음악,
정가(正歌). 우리 민족의 음악인
정가를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 1년을
하루같이 시민교육에 힘쓰고 있는
진주통합시우회를 찾았다.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이들은 나이도, 직업도, 다 다르지만 정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간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단체에 후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정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이기에 뿌듯하기만 하다고.



시조교실 개학식, 김병윤 회원이 후원자로서 격려의 인사를 건넨다.

시민교육에 힘쓰는 진주통합시우회 ——— 진주통합시우회는 지난 1979년, 흩어져 있던 3개 시우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로 정가를 배우고 연구하며 교육, 전승,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도 지부장은 학교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가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한 시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정가가 많이 소외되어 있고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냐는 생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 그동안 회원들의 시간과 노력만으로 꾸려졌던 시우회가 시조를 사랑하는 회원의 도움으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았다. 우연히 시조창대회를 접하고 정가의 매력에 빠진 김병윤 회원이 올해부터 그가 운영하고 있는 ‘김병윤회계사무소’의 이름으로 진주통합시우회와 매칭펀드 결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것. 이처럼 이번 시조교실은 김병윤회계사무소의 후원과 함께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풍성해졌다. 이 지부장은 “이번 시조교실로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가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신입회원도 늘어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정가 보급이 제 2의 도약을 맞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엄마와 아이가, 부부가 함께 듣는 교육 ——— 이날 시조교실에는 특별한 회원이 눈에 띄었다. 진주통합지부의 가장 어린 명예회원인 7살 아들과 함께 정가를 공부하고 있는 제시남 회원은 6년 전 직무연수에서 정가를 처음 만난 후 그 매력에 끌려 대학원에서 국악교육까지 전공했다. “정가를 배우기 전에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배워보니 생각보다 가락의 변화가 흥미롭고 변화무쌍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병윤 회원 역시 그의 정가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게 전해졌다. 그의 아내도 정가의 매력을 느끼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시조회관을 찾아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취미를 갖게 된 것. 이처럼 진주통합지부 시조교실은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켰고, 이런 작은 변화는 친구와 가족을 정가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이들이 시조교실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밖으로 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정가의 매력을 알린다면 사라져가던 우리 전통의 소리가 되살아 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소외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조교실, 국악학원보다 피아노 교실, 음악학원이 더 많은 요즘, 진주통합지부의 시조교실처럼 작은 노력을 더해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경남 예술단체들의 시민예술교육

양산윈드오케스트라 시민윈드오케스트라

윈드 합주를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다

토요일 오후, 양산의 한송예술촌 종합아트홀에는 10대 청소년부터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까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악기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양산윈드오케스트라가 운영하는 '시민윈드오케스트라 합주교실'의 현장이다. 이곳에는 나이와 성별, 직업이 다른 일반 시민들이 모여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등 각자 좋아하는 악기를 배우고 합주한다. 합주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중장년층은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양산윈드 합주교실은 음악을 좋아하고 윈드합주에 관심 있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합주교실을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은 악기 파트별 수업과 오케스트라 전체연습으로 이뤄진다.

기간_ 2016년 6월~12월 장소_ 양산 한송예술촌 종합아트홀

문의_ 양산윈드오케스트라 박우진 단장 010-3582-0367



01



02

내서문화포럼 문화달고나

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발표하고

내서문화포럼이 주관하는 '문화달고나'는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함께 즐기고, 무대에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내서문화포럼에서 지난 2010년 시작한 이래 6년의 시간 동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 넘치는 문화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대상은 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배우고 즐기기'와 '발표하기'로 나뉜다. '배우고 즐기기'는 가야금, 미술, 발레, 벽화그리기, 사진, 역사문화탐방 등을 배우는 과정이고, '발표하기'는 '동네방네문화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일 년 간 노력한 결과물을 공연과 전시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다.

기간_ 2016년 1월~12월 장소_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대

문의_ 내서문화포럼 이동근 사무국장 010-4584-4033

부곡온천문화예술협회 은빛도원도

03

어르신들을 위한 예술낙원

창녕에서는 은빛 머리의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 '예술의 도원'을 맛보고 있다. 창녕 나자렛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부곡온천문화예술협회가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은빛도원도' 수업이 바로 그것이다. 은빛도원도는 미술과 무용을 결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별교육과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어르신들이 생활의 활기와 즐거움을 찾도록 기획하였다. 교육대상은 창녕군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친숙한 우리 춤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신체를 움직이는 즐거움을 더하여 정서적 안정과 신체기능 향상을 제공하고 있다.



기간_ 2016년 6월~12월 장소_ 창녕 나자렛노인통합지원센터
문의_ 부곡온천문화예술협회 임현숙 아트디렉터 010-2472-1283



04

창원큰들 한일 시민이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

한일 시민의 베토벤 No.9 130명의 합창

일본과 꾸준한 교류활동을 이어온 창원큰들은 올해 한일 양국에서 시민들과 함께 베토벤의 '합창'에 도전한다. 오는 9월 3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12월 19일 일본 히메지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6 창원큰들 11주년 정기공연 '한일 시민이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 베토벤 No.9 130명 합창'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매주 모여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창원큰들의 시민예술교육은 사물놀이 교육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합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전하는 '베토벤 No.9 130명 합창' 역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한다.

기간_ 2016년 5월~9월 장소_ 경남이주민센터
문의_ 창원큰들 최명희 사무국장 055-284-7371

박선희판소리연구소 우리소리 멋 알기

05

우리 소리의 멋을 알리다

우리 소리에 관심 있는 창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창동 골목여행 - 우리소리 멋 알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소리의 멋을 알려주자 봄 학기와 가을 학기로 나누어 각각 10주씩 마산 창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참여하는 교육생들은 창동 상인들과 일반 시민들로서 직접 불러보며 체험하는 수업이라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은 지역별 민요의 차이점, 생활 속에 흔한 토속민요 부르기, 민요의 기본동작 배우기, 남도민요 익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간_ 2016년 4월~6월(10주), 9월~11월(10주) 장소_ 창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문의_ 박선희판소리연구소 박선희 대표 010-9244-7344 (재)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055-247-2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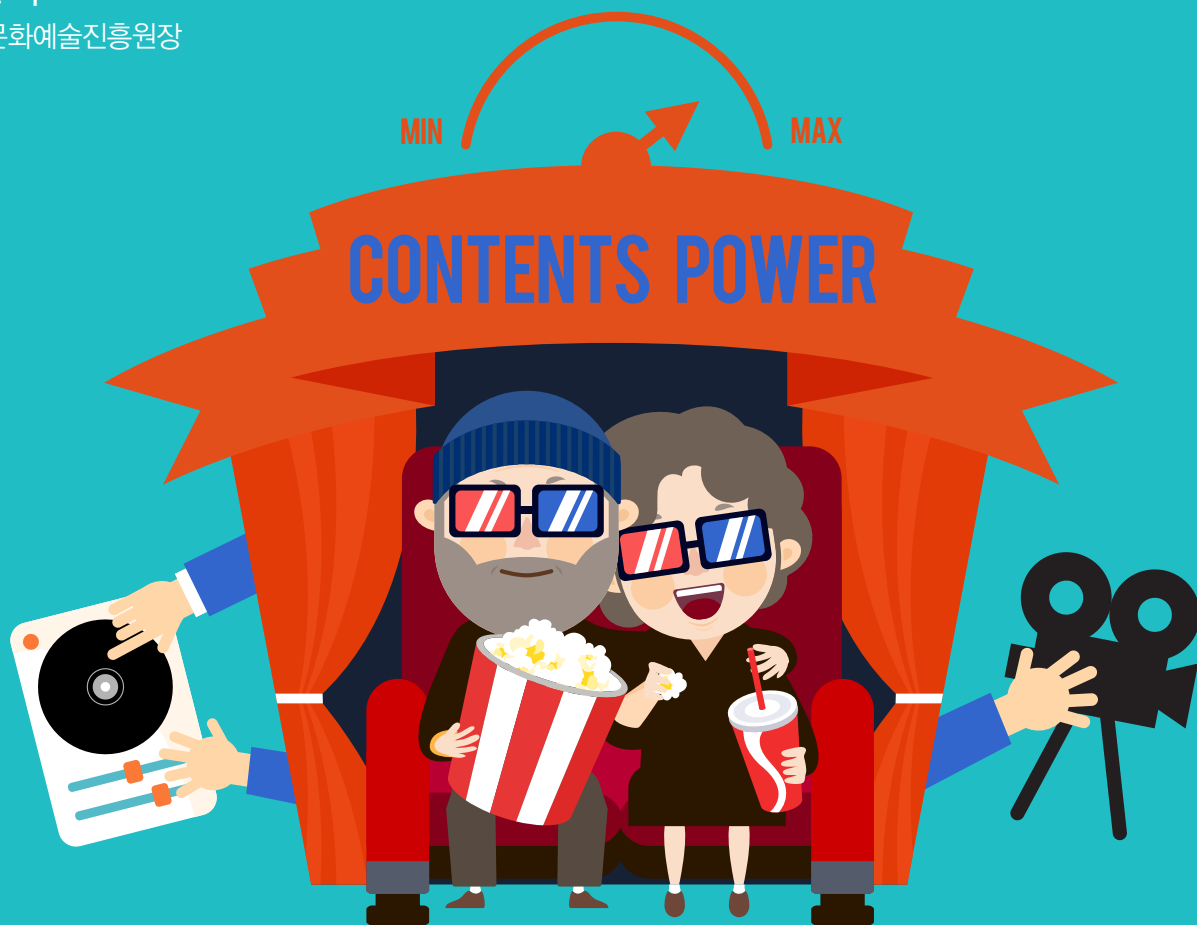




문화의 힘!! 콘텐츠 파워가 국력이 되는 시대

장 호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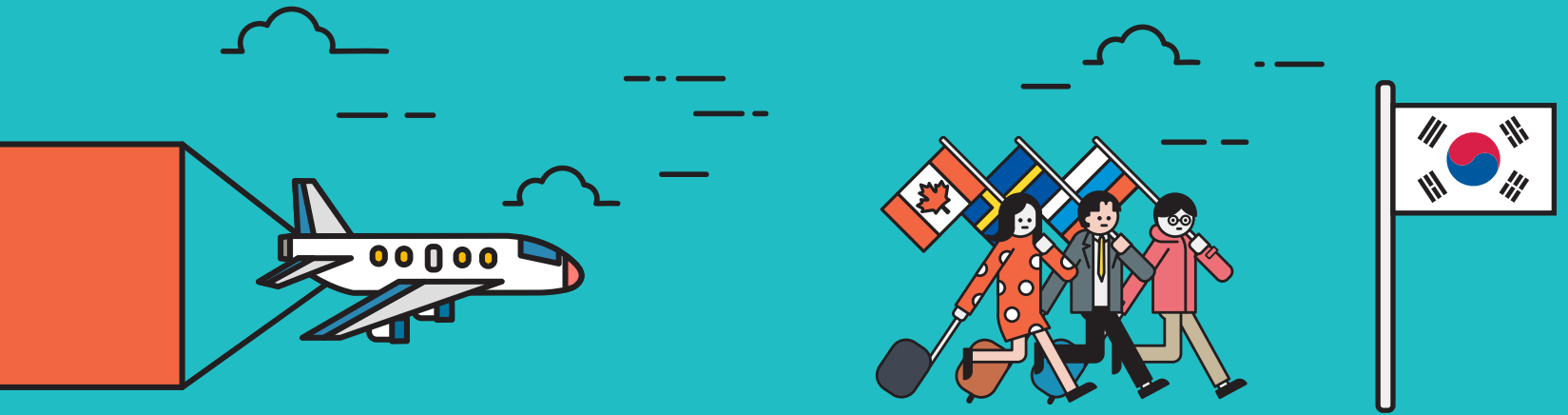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융성의 기치를 내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문화콘텐츠가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문화예술의 토대 위에 저마다의 다양한 ICT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 드라마 수출로 불을 댕긴 한류를 드라마, K-POP, 뮤지컬, 게임, 애니메이션, 한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로 확산 시키며 20년째 한류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은 57억 달러로 8.1% 성장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총 매출은 약 100조 원에 가깝다. 실로 엄청난 것이다. 예컨대,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와 SNS를 타고 급속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울려 퍼졌고, 창작 뮤지컬 '난타'는 해외공연 누적관객 1,00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



왔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국에 실시간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 26억 뷰(view)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막을 내렸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벌써 한국의 자동차, 패션, 뷰티, 식품, 음악 등에서 드라마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3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다.

세계 콘텐츠 시장 매출은 연간 1,500조 원 ____ 드라마 한 편이 몇 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문화콘텐츠 파워다. 이러한 콘텐츠 성공 사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갖은 노력으로 성취한 부분도 많지만, 아직 개척할 여지도 많이 남아있다.

세계 콘텐츠 시장 매출은 연간 1,500조 원이다. 세계최대 콘텐츠 강국은 미국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위권에 들어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며 치열한 상위권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실로 놀랍다. 콘텐츠 파워는 대개 국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분야에서 만큼은 국력보다 약간 앞서고 있고, 또 발전 가능성도 많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국들이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 선진국의 공통점 ____ 필자가 오랫동안 방송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현재 지역문화산업 진흥기관의 장으로서 느낀 점은 콘텐츠 선진국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문화예술 창작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상력에 기초한 문화예술 기반 위에 첨단 정보기술을 입히는 융·복합 과정에서 실패를 견뎌주고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덧붙여 콘텐츠 창작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주눅 들지 않고,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소통하면서, 그들만

의 독창적인 세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조앤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가 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이른바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되새겨보아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의 중요성도 날로 더해지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Local) 것이 가장 세계적(Global)이다’라는 말처럼, 콘텐츠 선진국들은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면서,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토마토축제(La Tomatina)가 열리는 부논(Bunol)이라는 지역과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이 열리는 아비뇽이란 지역도 인구 10만 이내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도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지역특성을 어떻게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역특화 콘텐츠가 중요 ____ 결론적으로 우리 경남도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전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기획자 등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고, 이들이 맘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융합적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토대 위에서만 꽃이 피는 콘텐츠이다. 문화의 힘, 콘텐츠 파워가 국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예산을 늘리고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해서 문화부 예산이 턱없이 적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여전히, 거의 습관적으로, 예산삭감 1순위로 문화예술 분야를 지목하고 칼질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흥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18 / Accompany

40 / Activities Note

24 / Interview

44 / Mecenat News

34 / Enjoy Culture

50 / Mecenat News Brief

A brown ceramic teapot is positioned in the upper right quadrant of the image. The teapot has a rounded body, a small spout on the left, and a lid with a central knob. It sits on a dark, textured wooden surface. In the lower left area, three dried, light-colored chrysanthemum flowers are scattered. The background is a wooden wall with vertical grain patterns.

찾잔

빈자리에서 향이 부른다

비어서 채울 수 있다니

나는 왜 있어야만 했고

있으면서도 왜

채우지도 향기롭지도 못한가

저 원형의 공간들

비어 있어 아름답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야 향긋함을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기업 미술관 경남 제 1호 한국야나세, 시민을 위한 금강미술관 개관

Writer 김혜연 Photographer 구분수

마산 창동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구 금강제화 건물이 금강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하 1층에는 귀한 중국도자기가 상설 전시되고 1층과 2층은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된다. 특별전 외에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작품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금강미술관의 개관에는 ㈜한국야나세가 평소 견지해온 기업메세나 정신을 바탕으로, 우영준 회장과 이성석 관장의 정성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평소 도자기와 미술작품에 관심 있던 지인들이 좋은 뜻에 동참하면서 작품을 기부했음은 물론 우영준 회장이 어려운 작가들을 격려하고자 사비를 털어서 한 점 두 점 사 모은 작품들이 더해져 값진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우영준 회장은 청년시절부터 미술관을 세우는 것이 평생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미술관 개관의 플랜을 세워 조금씩 뼈대를 갖춰 나갔고, 잠정 완성되어 갈 무렵 고향인 마산 진전 부근을 먼저 살펴보았으나 장소가 여의치 않았다. 뜻을 함께 하던 이성석 관장 및 지인들과 심사숙고의 의논 끝에 창동이야말로 예술

5월 2일 오후 3시 경쾌한 사물놀이 소리가 도심의 줄음을 깨운다. 마산 창동 금강미술관 개관식에 앞서, 박선희판소리연구소에서 식전공연으로 미술관의 발전을 축원하는 지신밟기를 선보였다. 거기에 경남원드오케스트라의 금관 6중주, 마산예총의 대중가수 공연까지 이어지며, 평소 우영준 회장의 후원을 받아온 예술단체들이 축하의 무대로 그 사랑에 보답했다.



미술관개관식에 지역의 많은 기업인과 예술인들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아름다운 동행이





경남도민일보 2016년 4월 14일 자 '경남에 첫 기업 미술관 탄생' 기사에 실린 우영준 (주)한국아나세 회장 모습/경남도민일보 우귀화 기자

를 세웠으니 어렵겠지만 앞만 보고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응골찬 각오를 보인다.

개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로 답하는 그를 보면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최미영 이사에게 평소 어떤 분인지 물었다. “지역의 노인들이나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어려운 예술인들을 기꺼이 도우며 언제나 자신보다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멋진 회장님”이라며 진심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 전반이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각자가 자신의 지역에 가지는 작은 관심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영준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값어치도 대단하지만, 그가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애정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로 환산되어 지역예술 발전의 흐름에 분명 긍정적인 기운으로 번질 것이다.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아낌없이 갤러리를 대관하겠다는 금강미술관은 현재 도자기 350여점과 근현대 회화 및 조각 작품 1,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우리 지역 출신인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이림, 전혁림, 이준 화백의 작품을 비롯하여 현재호, 김창렬, 오세영, 안재덕, 김태홍 등 국내외 작고·현역작가를 아우르는 뛰어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10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



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 회장은 미술관 운영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지역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중앙에만 몰려있는 양질의 예술작품들을 우리 지역 시민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개관 계기를 밝혔다. 또한 쇠락한 원도심의 재생을 도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운택하게 가꾸어가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건설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그는 이제 목표



센트랄과
경남미술청년작가회가
함께 한

제1회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미술대회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구본수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소녀의 꿈,
꿈을 이룬 지금의 그녀가
아이들에게 전하고픈
또 다른 꿈.





소녀가 있었다. 그림으로 세상과 이야기하던 소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손을 잡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나갔던 미술대회에서 '화가'의 꿈을 키웠다. 잔디밭 위에서, 모래사장 위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8절의 세계에 자신의 꿈을 마음껏 그려 넣었던 소녀는 자라나 화가가 되었다. 도화지 속에서만 존재했던 꿈을 세상에 펼쳐 보인 순간, 또 다른 꿈이 생겼다. 다른 소년소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예술가가 되겠노라고.

행복한 세상, 꿈을 꾸는 아이들

오래 내렸던 비가 멈추고 하늘에서 기분 좋은 햇살이 내리쬐다. 오랜만에 맞는 청량한 6월의 어느 토요일, 창원 용지공원 포정사 일대에 역사상 가장 어린 예술가들이 모였다. 도화지를 놓을만한 작은 상과 스케치북,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화판 등 다양한 미술재료가 녹색의 잔디밭 위로 펼쳐졌다.

바로 이곳에서 센트랄과 경남미술청년작가회가 함께 준비한 '제1회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미술대회'가 열렸다. 센트랄은 그동안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예술경영을 실천해 왔다. 이번에는 자라나는 미술 새싹들에게 힘이 되고자 미술대회 개최를 고민하던 중 뜻이 맞는 경남미술청년작가회를 만나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 대회 주최를 맡은 경남미술청년작가회는 경남의 각 지역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년작가회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15년 정식으로 발족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아는 두 단체가 만나, 이처럼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냈다.

'행복한 가족'을 그리는 미래의 화가

센트랄 김민호 부장은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백일장에 나가 글을 쓰고 자연 속에서 뛰어 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냈다. 물론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마

음껏 놓고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기억.

"요즘 아이들은 주로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야외에서 뛰어 놀며 그림도 그리고, 이런 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나 행복한 세상도 스스로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경남미술청년작가회 김혜은 회장에게도 이번 대회는 특별하다. 자신이 간직했던 두 가지 꿈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 대회를 열게 됨으로써 화가가 되겠다는 꿈과 다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꿈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갔던 미술대회에서 화가의 꿈을 키웠듯이 많은 아이들이 이 대회를 통해 좋은 꿈을 꾸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웠다는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위한 대회니만큼 첫 번째 대회의 시제는 '행복한 가족'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의 모습을 마음껏 도화지에 그려 넣었다. 가족끼리 산책이라도 나온 것 마냥 설렘 가득한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대회'라는 타이틀 보다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마냥 행복해 보였다.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떤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잔디밭 위에 앉아 따뜻한 해를 받으며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림 그리는 것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중 누군가는 예술가의 꿈을 꿴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술에 대한 센트랄의 사랑이 만들어 낸 '미술대회'라는 도화지 안에 아이들이 어떤 색색의 꿈들을 그려 넣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소유의 빈 공간이 공유의 문화 공간이 되자 모두가 행복해졌다

코앞건설의 공간 기부

Writer 메세나 Photographer 메세나

도시는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신도심은 밤낮없이 반짝이지만, 원도심은 자릿세를 감당하지 못해 비어버린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재생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유헴공간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눈길을 끈다. 부산 중앙동 원도심 일대를 작가 236명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변모시킨 ‘또따또가’나, 쇠락해가던 마산 창동을 부흥시키고 있는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보통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주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개인이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진주 코앞건설 박범주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진주시 칠암동 49-6번지. 세월이 느껴지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에는 간판 대신 한 시민단체의 구호가 펄럭인다. 우편함에 조그맣게 적힌 ‘코앞’이라는 글자를 보고서야 2층으로 올라가보았다. 문을 열자,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는 짐작도 못할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다. 회의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용거실과 독립성이 보장된 네 개의 방,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로 구성된 30여 평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코앞건설’의 공간 기부 메세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술한 덧칠마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빈티지한 인테리어는 건축가인 박범주 대표의 손길에 의해 하나하나 다듬어진 것이다. 처음 이곳에 사무실을 낼 무렵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인근 학교의 폐강당 바닥을 뜯어와 벽 한 칸을 만들기도 했다. 그만큼 그에게는 젊은 날의 노력과 열정이 가득 담긴 소중한 곳이다. 이곳이 이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패기 넘치던 젊은 기업가의 꿈이 이 공간을 통해 젊은 예술인들의 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박범주 대표

공유 공간 '코앞'은 작년까지 박 대표의 건축 사무실이었다. 실제로 방 하나만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시민 예술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장소로 활용되곤 했다. 이미 시민들의 공유 공간이었던 셈이다. 그러다 작년 말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이곳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애나뮤직' 뮤지션들이 작업공간이 없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애나뮤직'은 진주에서 인디밴드 활동을 하면서 음반도 제작하고, 직장인 밴드도 운영하는 문화기획사다. 상업적 이익이 거의 없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작업실의 제공은 단비와도 같았다. 박 대표는 애나뮤직에 이어 진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대안 언론 '단디뉴스'에 또 다른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이어 작업 공간이 필요했던 한 화가에게 창작실을 내어 주었고, 시민단체 '진주같은'에 마지막 남은 방을 내어주었다. 네 단체가 각자의 작업실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고, 공유공간인 거실에서는 언제든지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웃음이 되어 준다. 애나뮤직 최우영 대표는 이곳에 온 이후 마음 편하게 창작과 연습에 전념할 수 있어 작업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거기다 공간을 공유하는 '코앞' 식구들이 다들 누나처럼 잘 챙겨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며 활짝 웃었다.



애나뮤직 작업실



공유의 공간 거실

자유롭게 일하고 함께 어울린다

각기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부딪치는 일은 없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이구동성 각자의 독립적인 작업을 유지하고 그 외의 생활은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지낸다고 한다. 더 나아가 협업도 진행 중이다. '애나뮤직' 뮤지션들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화가의 전시 오픈식에서 작품들과 어울리는 음악을 엄선하여 라이브로 들려줄 예정이다. 또 '단디뉴스'는 '진주같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인터넷 기사로 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정'을 느낄 수 있어 외롭지 않아서 좋다. 이곳은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주로 이용되지만 한 달에 두어 번은 시민들의 우쿨렐레 연습 장소로도 활용된다. 환경에 민감한 예술인들에게는 그 모임이 조금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도 공간이 절실함을 알기에 배려하게 된다. 예전에는 시민들의 예술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이 더 많았는데 이전 거주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고려해 한 동아리만 허용하고 있다고 누군가 귀띔해 주었다.

박 대표의 이러한 공간 나눔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도심의 빈 공간이 활용되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개인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또, 재능과 열정이 있음에도 환경이 열악하여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성장하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라도 이들을 계속 믿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 대표의 수줍은 미소에서 '코앞' 식구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이 가득 배어나왔다.



단디뉴스 사무실

INTERVIEW 01 :

산청산골박물관에서 만나는 문화의 아름다움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Writer 이희경 Photographer 메세나

산청 시골길을 한참을 달려 초록이 무성한 산허리를 휘감아 올라가니 도시에 있을 법한 연회색의 모던한 콘크리트 건물이 보인다. 지리산 자락 해발고도 250m에 위치한, 농장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박물관이라는 ‘산청산골박물관’이다.



‘닭’을 주제로 한 세계의 이색적인 작품들은 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

이상호 대표는

산골농장 이상호 대표는 산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산청 토박이다. 산청 사랑이 아주 각별하여 지역전통 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산청의 전통예술 단체인 산청민속보존회와 매구보존회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기업과 문화는 함께 하는 것’이라며 사비 20여억 원을 들여 산골농장 인근에 산청산골박물관을 개관했다

지리산 자락에서 만난 산청산골박물관은 현대식 건축물이지만 주변에 정갈하게 배치된 돌과 소나무들과 더불어 한 폭의 풍경화처럼 자연스럽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한껏 머금고 내려다보니 갈전마을 봄의 정경이 평화롭기 그지없다.

산에서 일하다 내려 온 이상호 대표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농군이기도 하다. 방문객을 반가이 맞이하는 웃음 가득한 얼굴이 옛적부터 알아 온 사이인 듯 푸근하게 느껴진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으로 만들었다는 갓 구운 빵은 고소하니 맛있다. 커피 한잔을 나누며 마주한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소신 있고 강직한 리더십이 느껴진다.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는 사훈만 보아도 이상호 대표가 범상치 않음이 느껴진다.

이상호 대표는 산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가다. 그가 운영하는 양계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은 환경 친화 축산농장으로서, 하루에 달걀 25만 여개를 생산한다. 그는 최고 품질의 달걀을 얻기 위해 계사 내의 닭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음악을 들은 닭들은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혈란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선진기술과 첨단 자동설비로 고영양 신선란을 생산하며, 매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산청산골박물관

지하층과 1층은 전시실, 2층은 전시실 및 카페, 3층은 호텔, 건물 주변의 별채와 도예체험실,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텔에선 숙박을, 체험실에선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어 산청산골박물관과 산골관광농원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산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상호 대표의 산청 사랑은 아주 각별하다. 특히 지역전통 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산청의 전통예술 단체인 산청민속보존회와 매구보존회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기업과 문화는 함께 하는 것’이라며 사비 20여억 원을 들여 산골농장 인근에 산청산골박물관을 개관했다. 제1종 전문 박물관(경남도 제57호)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지하층과 1층은 전시실, 2층은 전시실 및 카페, 3층은 호텔, 건물 주변의 별채와 도예체험실,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전시실에는 옛 농기구들과 생활용품들이 400여점 전시되어 있어 우리조상들의 민속을 엿볼 수 있다. 1층에는 산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청자, 백자, 옹기, 문서 등 유물이 600여점 전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양계농장답게 닭 그림, 닭 향아리, 닭 장식품 등 세계 각국의 닭 모양 예술작품들을 수백여점 전시한 특별전시관을 구경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이상호 대표는 그동안 산청지역 문화와 유물이 외부로 빠져 나가고 분실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전시실이

있어 이제 다행이라고 말한다.

2층 산골카페에 들어서자 '산청산골박물관과 함께하는 산골음악회'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마침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다. 비록 시골이지만 지역민들, 산골농장 직원들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나누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라고 한다. 객석엔 이미 관객들로 가득하다. 청아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성악가의 노랫소리와 현악 연주는 창 너머 자연과 맞닿아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킨다. 지리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고 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흡족한 미소가 흐르고 지그시 눈을 감고 즐기는 이도 있다. 산청산골박물관은 이처럼 문화예술의 공간이자 산청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골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차 맛 또한 일품이다. 늦그릇에 정갈하게 담겨진 반찬들은 하나같이 몸에 좋은 토속 반찬이다. 재료들도 직접 채취한 산나물과 무농약으로 재배한 채소들 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음료들도 손수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카페 공간에는 수제로 차를 만들어 담아 둔 병들로 가득하다. 이익을 남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건강을 우선시 하는 음식을 만들기에 우리 입이 이처럼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상호 대표는 봉사와 나눔의 삶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몸에 밴 모습이다. '좋은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와 기초수급자를 돕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봉사를 하면 힐링이 되고, 행복지수가 더 높아진다"는 그는 봉사 정신이 새마을 운동처럼 확산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봉사를 하려면 용기 있게 앞장 서야 하고, 댓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멋진 추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개척자이기도 하다. 산골이지만 도심의 문화공간처럼 지역민들과 다양한 문화경험을 나누기를 원한다. 2001년부터 매년 5월이면 지리산 장미 축제를 열고 전국사 진촬영대회, 어린이사생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최근에는 교통혼잡 문제로 중단되었지만,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꼭 이어가 산청의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은 바람이다.

문을 연 지 이제 일 년 남짓. 아직 이 곳을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산 새들의 지저귀처럼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 뛰놀고 재잘거릴 날이 멀지 않음을 기대해 본다.



산골음악회. 테너 최요섭과 소프라노 백향미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산청을 물들여갔다.

INTERVIEW 02 :

부곡온천에 예술이 샘솟다

부곡스파디움 따오기 호텔 안영조 회장

Writer 이희경 Photographer 메세나



부곡스파디움 따오기 호텔 안영조 회장과 김미련 작가

호텔을 찾았을 때 미디어영상 설치작가 김미련의
'소별야화-메모리에러'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김미련
작가와 함께 전시에 대해 설명해주는 안영조 회장.

창녕 부곡온천은 19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던 관광지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드문해지고 온천장들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고향마을의 흥망을 지켜보던 ㈜봉견 안영조 회장은 부곡온천수의 가치를 알리고 부곡온천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경매에 넘겨진 낡은 호텔을 인수했다.

최신식 시설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새 단장한 채 2012년 7월 '부곡스파디움 따오기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SPA
ART 2016
PROJECT**
September 30th -
October 2th

2016 SPA ART PROJECT

(사)부곡온천문화예술협회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곡스파디움 따오기호텔 4, 5층에서 호텔아트페어인 2016 SPA ART PROJECT를 개최한다. 이번 호텔페어에는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6개국에서 화가와 작가가 참여하며 출품 작품수는 1,000여 점에 이른다.

<http://blog.naver.com/basan11>

새롭게 문을 연 부곡스파디움 따오기 호텔은 첫 달, 무려 수천만원치의 적자를 떠안았지만 안 회장은 사업가답게 곳곳이 호텔경영을 이어갔고 그 결과 6개월이 지나자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그 분야에 미쳐야 성공한다는 소신을 가진 안 회장의 믿음과 열정이 이룬 결과였다.

안 회장이 최근 폭 빠져있는 분야는 '메세나'다. 평소 그림도, 음악도 좋아하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다시 성장세에 오른 부곡온천에 문화예술이 큰 시너지가 되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곡온천에서의 문화예술 사업들을 후원하기로 했다. 마침, 부곡온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예술을 결합하여 양성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던 '부곡온천문화예술협회'와 메세나 결연을 맺으며 공식적인 후원자가 되었다.

온천과 갤러리, 몸과 마음의 힐링

따오기 호텔은 부곡온천마을 부곡하와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세련되고 깔끔한 현대식 건물에, 입구에는 자동차 모양의 조형작품이 반짝이며 손님들을 맞는다. 로비에 들어서자 로비와 양쪽 벽면 가득 설치작품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달 전시의 주인공은 '스캔' 작업으로 유명한 김미련 작가다. 우포늪의 식물들을 스캔한, 그림인지 사진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하고 매력적인 작품들에 절로 눈이 간다.

안 회장에게 호텔 로비에 갤러리를 열게 된 동기를 물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찾아와 참고를 임대하여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고 부탁하길래 참고보다는 호텔로비가 어떠냐고 제안했지요." 본격적으로 갤러리를 조성하기 시작할 무렵 값비싼 자재의 내벽을 부숴야했기에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돈보다는 가치를 선택, 과감히 벽을 부숴다. 갤러리 개관 이후 메세나 파트너인 부곡온천문화예술협회 임현숙 디렉터와 함께 매달 새로운 전

시를 선보이며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문턱 없는 전시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스파디움에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찾는 고객들은 미술작품 관람을 통해 마음의 힐링까지 얻게 된다. 온천을 매달 이용한다는 한 손님은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 유익하고 즐겁다고 전했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호텔의 품격이 높아 보인다는 말도 덧붙인다.

부곡온천의 문화관광을 위해

안영조 회장은 갤러리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옥상에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는 호텔에 와서 누구나 공연과 전시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부곡만의 온천문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지역예술인들에게는 활동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일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다 온천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예술이 주는 기쁨과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 옥상에는 삼백 명쯤 수용 가능한 넓은 공간이 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관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곳 부곡온천의 메세나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기대하게 한다.

호텔 객실들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섬세한 정성이 느껴진다. 아늑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진 객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기에 좋다. 특히 4, 5층 객실에서는 9월 30일부터 3일간 역량 있는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는 경남 최초의 '호텔 아트페어'를 개최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 아직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호텔 아트페어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의 도전과 열정이 온천수만큼 뜨겁고 시원하다. 부곡온천과 예술이 만나, 부곡온천이 옛 명성을 되찾고 문화관광의 명소로 우뚝 서길 기원해본다.



INTERVIEW 03 :

자연이 만든 풍경, 작가의 손에서 예술이 되다

‘아름다운 경남 100경 100작展’ 신종식 화가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구본수

자연이 만들어 낸 풍경에 예술가의 남다른 시선이 더해졌다. 그 곳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계절과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 발품을 팔았던 시간들과, 화폭 위를 스쳤던 수천 번의 터치들이 만들어 낸 한 폭의 예술. 작가의 화실에서 신종식 작가만의 맑고 따뜻한 감성으로 해석된 경남의 아름다운 경관을 수채화로 만날 수 있었다.



진주시 문산배꽃



위 작품의 실제 촬영 영상이미지. 직접 제작한 드론을 하늘로 띄우는 것부터 촬영한 영상을 수채화로 옮기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않다.

새의 시선으로 풍경을 보다

예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나는 꿈을 꾀 왔다. 그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었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래서 많은 예술작품에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 또는 날개가 등장하곤 한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새가 되지는 못했지만 새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날개는 없지만 카메라에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 드론을 이용해 카메라를 높이 띄울 수 있게 되면서 평면의 시선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풍경도 만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립미술관과와 경남메세나협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아름다운 경남 100경 100작展’은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맑고 투명한 느낌의 수채화를 통해 표현하는 전시회다. 신종식 수채화가는 이번 전시 작품을 그리기 위해 직접 드론을 제작,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각 명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수채화로 그려냈다.

가장 아름다운 찰나를 따뜻하게 그려내다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수’화실에서 오는 9월에 있을 ‘아름다운 경남 100경 100작展’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신종식 수채화가를 만났다. 비행기에서 본 풍경에 반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 관심이 생겼다는 그는 드론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헬륨풍선에 카메라를 달아 하늘에 띄워볼까 고민할 정도로 호기심 가득한 예술가였다. 그런 그가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전시가 있었으니, 바로 경남의

아름다운 장소 100군데를 찾아가 항공촬영을 통해 얻은 장면을 수채화로 남기는 것이었다.

경남의 아름다운 장소를 탐사하면서 직접 드론을 제작해 하늘로 띄우는 것부터 촬영한 영상을 수채화로 옮기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워낙 여행을 좋아했던 터라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풍경은 가득했지만 ‘그 곳’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계절과 시간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하동의 벚꽃길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했고, 지리산 천왕봉의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그 날 그 시간을 정확히 담아내야 했다.

“천왕봉의 새해 첫 날 일출을 설경과 함께 담고 싶어서 12월 마지막 날에 산에 올랐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새해 첫 일출을 다행히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었어요. 그 땐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자연이란 것이 상황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몇 번이나 촬영을 반복해야 했던 경우도 많았다고.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냈고,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그려내기 가장 적합한 한 컷을 선택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수채화 한 폭을 그려내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것. 그릴 장면을 선택하고 나면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하는 시간은 오롯이 ‘수채화가’라는 본업으로 돌아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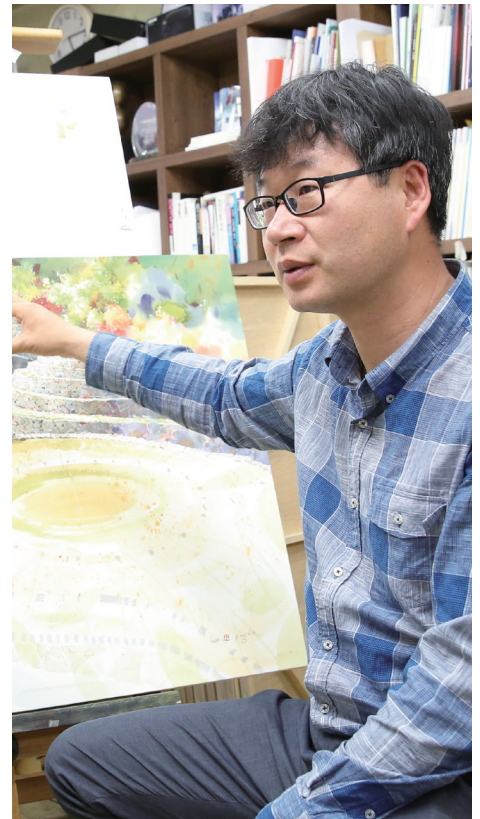
물감에 적당히 물을 섞고, 빛의 방향을 잘 파악해 풍경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색채를 더한다.

“자연을 단순히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물의 번짐과 붓터치를 이용해 나름대로 해석을 더합니다.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따뜻한 색감을 추가하고,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진에 없는 색을 추가하기도 하면서 자연을 조절하는 거죠.”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아름다운 100경100작을 만나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제작한 100점의 작품이 오는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전시장에는 100개의 아름다운 작품들뿐 아니라 QR코드 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작품의 실제 배경, 제작 과정과 해설까지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평면의 수채화를 보면서 살아있는 자연을 촬영한 모습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식 수채화가의 바람처럼 수채화로 그려진 경남 18개 시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다’고 느끼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연을 단순히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물의 번짐과 붓터치로 나름대로 해석을 더해낸다. 말 그대로 자연을 조절하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그 곳에 가고 싶다”고 느끼게 되길 바란다.

INTERVIEW 04 :

음표 하나에 사랑과, 음표 하나에 열정과

피아니스트 이주은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구본수

벅고동 소리를 듣고 자란 그녀가 주목받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돌아왔다.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이주은은 지난 2013년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경남 유일의 예술대학에서 예술인재를 키워내는 데 한 몫을 하면서도 여전히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주은 교수를 만났다.

‘하필’에서 ‘다행’으로

이주은 교수는 경남 마산에서 벅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음악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기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처음에는 ‘하필’ 지방에서 태어나 음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평범하고 즐겁게 살았던 마산에서의 삶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가 음악이라는 외롭고 긴 여정에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학창시절 또래와 비슷한 삶을 살고, 그들과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던 추억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산에서 나고 자랄 수 있어서, 누구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음표 하나에 사랑과, 음표 하나에 열정과

이주은 교수는 독일에서 활동할 당시 현지 비평가들 통해 ‘음악을 통한 의사표현이 명확한 연주

자’라는 호평을 받았다.

“음악은 작곡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음표를 제가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죠. 곡에 담긴 작곡가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악보에 그려진 음표만을 보고 치는 것으로 부족하다. 피아노 기교는 기본이고 작곡가와 시대, 인문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비로소 한 곡의 음악을 연주해 낼 수 있는 것. 이주은 교수는 작곡가가 그 음표를 그 위치에 그 박자만큼의 호흡으로 써 놓은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교수의 자리에 올라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까지 연구실에 남아 연습에 매진하는 이유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녀는 처음으로 창원대학교 강단에 섰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다. 피아노 실기시험 곡을 늘리고 졸업연주회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술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늦게까지 개인연습을 할 정도로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지 않



이주은 교수는 최근 독일의 명문교향악단 ‘니더바이리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바이에른 지역의 국립극장 ‘란츠후트’와 ‘파사우’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음악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그녀는
 “길을 걷다 클래식 공연 포스터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

을 때 피아노를 그만둘 생각이예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배워야 할 곡이 더 많기 때문에 연주가 들어오면 새로운 곡을 선정하고, 곡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음악의 힘, 같이 나누고파

그녀는 독일에서 유학할 당시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연주할 기회가 많았다.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음악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또한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힘을 알고, 그것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각도를 바꿔 보세요. 컬투쇼를 듣다가 5분만 클래식 채널에 귀

를 기울여 보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결눈질하다 보면 예술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독일에서 ‘브람스’를 연주하다

이주는 교수는 최근 독일의 명문교향악단 ‘니더바이리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바이에른 지역의 국립극장 ‘란츠후트’와 ‘파사우’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경남메세나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에서 이주는 교수는 상당한 체력과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연주하여 독일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주는 교수는 오는 9월에 있을 연주회에서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도 브람스를 들려줄 계획이다. 이미 수백 번 연습한 곡이지만 아

직도 매일 같이 피아노 앞에서 브람스와 대화를 나눈다. 과연 그녀만의 어떤 해석이 덧붙어질까. 다가올 가을밤이 무척 기다려진다.

창원대 음악과 이주는 교수는 독일 뮌헨 국립음대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하였으며, 이후 세계의 권위 있는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뮌헨필하모니 극장, 루빈스타인 홀 등 유럽 유수의 음악제에 초청받아 공연하는 등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해 대학에서 후학양성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취재는 다우링 에너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HE CITY OF ARTS, VIENNA



오스트리아 문화예술 기행 예술도시 빈

Writer 메세나 Photographer 메세나

영화 '비포선라이즈'의 주인공처럼 프라타의 대관람차에 타 보았다. 발아래 펼쳐진 빈의 아름다운 전경이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있음을 실감케 한다. 중세유럽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이 낭만적인 도시에서 예술과의 공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살기 좋은 나라’ 오스트리아

중부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은 면적에 인구는 87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에 달한다. 기계,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 강국이지만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모차르트와 왈츠, 클림트가 있는 ‘예술의 나라’로 바라본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각종 통계에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늘 상위권이고 수도 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제조업 기반의 GDP 세계 11위인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결코 살기 좋은 나라로 불리지는 않는다. 그 차이를 오스트리아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이유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국민은 세계 최정상급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국민음악 왈츠연주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고, 어려서부터 미술관 광장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고, 퇴근 후에는 왕가의 거처였던 궁전에서 여유롭게 조깅을 한다. 이들에게 예술은 오랫동안 축적되고 공유된 문화이자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또한 예술은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오스트리아로 불러들인다. 유럽의 테러 공포 속에서도 오스트리아를 찾는 외국인 관



광객 수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빈 뮤직필름페스티벌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비롯해 각 지역의 음악축제들은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아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예술은 유럽의 작고 오래된 나라 '오스트리아'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며 미래까지 지속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칼럼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예술도시라 불리는 빈의 일상적인 모습들과 유럽에서 한국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고자 노력하는 한인 문화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두의 문화공간이 된 궁전들

10세기 바벤베르크 가문이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얻으면서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하기 시작한 1278년부터 약 650여 년 간 유럽의 중심지로서 화려한 역사와 문화를 꽃 피웠다. 그 번영의 상징이 바로 궁전이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공화국이 되자 궁전은 미술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간으로 꾸며졌고, 오늘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놀이와 쉼의 공간이자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여름궁전.

'신부른'에서 45개의 스토리를 만나다.

신부른 궁전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취향이 반영된 바로크 양식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궁전이다. 가문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 부르봉가의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자 증축하였지만 결국 그보다 훨씬 작게 지어졌다. 하지만 신부른은 프란츠 슈테판 황제가 아내 마리아를 위해 몸소 정원을 가꾸었다는 낭만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크기와 상관없이 베르사유 못지않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신부른은 스토리텔링으로 문화관광이 부흥한 궁전이다. 총 1,441개의 방 중에서 45개의 방을 공개하고 있는데 각 방마다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울의 방'은 6살 모차르트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초대를 받아 천재적인 연주를 선보인 후 1살 연상의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칭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며 유럽을 호령했던 마리아 테레지아와 세계 최고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그리고 프랑스의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라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크 양식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궁전, 침부른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휴식처 ‘호프부르크’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궁이자 겨울궁인 호프부르크 궁전은 13세기에 건축된 이래 시대별로 증축되었는데, 현재 총 10개의 건물에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건축양식들이 섞여 있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건축사 박물관처럼 보인다. 궁전에는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유명한 씨씨 황후 박물관을 비롯하여 스페인 승마학교, 왕궁예배당, 대통령 집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왕궁예배당은 일요일마다 빈 소년합창단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로 늘 북적인다. 호프부르크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자 쉼터이기도 하다. 국립도서관과 카페, 레스토랑,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600여년간 유럽을 장악했던 위엄 넘치던 궁전이 오늘날에는 시민들과의 공유공간으로서 그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클림트의 ‘키스’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벨베데레’**



벨베데레 궁전은 상·하로 나뉜 두 개의 화려한 궁전과 그 사이에 놓인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전쟁영웅 오이겐 공의

궁전이었으나 그의 사후 합스부르크 왕가가 구입하여 소장품 갤러리로 사용하였고, 공화국이 된 이후로는 국립미술관이 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근대 회화 작품들과 함께 아르누보 계열의 색채 미술사라 불리는 구스타프 클림트를 비롯하여 에곤 실레, 한스 마카르트 등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클림트의 경우 ‘키스’를 보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관광지 어디를 가도 ‘키스’와 관련된 기념품들이 판매될 정도니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키스’의 힘은 ‘모차르트’와 더불어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클림트는 유럽의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19C 빈 분리파를 이끌었던 기수이기도 하다. 그는 저항과 혁신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던 오스트리아의 예술을 현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의 작품이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궁전에 전시되어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서로를 빛으로 끌어주고 있지 않은가.

건축예술의 도시 빈

빈 거리를 걷다보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느껴진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남긴 고풍스러운 궁전들을 비롯하여 오토 바그너의 현식적인 건축물, UN기구 같은 현대적인 초고층빌딩, 훈데르트 바서의 자연주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도시의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다.





빈의 자부심, 국립오페라극장

빈의 중심 '링 거리'

현재 빈의 도시구조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1857년 성벽을 허물고 구시가지지를 동그랗게 둘러싼 링 거리를 만들면서 완성되었다. 링 거리를 따라 네오고딕 양식의 시 청사, 그리스 신전을 본 뜬 국회의사당, 고전·고딕·르네상스 등이 혼용된 국립오페라극장 등이 건축되었다. 유럽 3대 오페라극장에 속하는 빈 국립오페라극장은 링 거리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을 정도로 시민들의 자부심과 애정이 각별한 곳이다. 링 안쪽에 최대 변화기인 빈 제1구로서, 슈테판 대성당이나 호프부르크 궁전 같은 전통적 건축물들은 물론 고급 상점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한 게르트너 거리가 있어 늘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예술과 쉼을 잇다, 엠큐와 '엔지스'

레오폴드 미술관,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빈 건축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박물관 지구(무제움 콰르티어 MQ)는 1700년대까지만 해도 황실의 마구간이었다. 시민들의 오랜 합의를 거쳐 세계최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오늘날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놀이터이자 시민들의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엠큐의 야외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엔지스'를 문화교류의 의미로 우리나라에 기증했다고 한다. 엔지스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예술과 휴식을 즐기는 쉼터이자, 빈의 현대예술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을 시작으로 예술과 쉼을 잇는 한국적인 엔지스가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예술은 시민들의 일상

가정집에 방문하면 현관 옆에 그달의 공연과 전시 일정이 빼곡히 적힌 캘린더가 눈에 띈다. 시에서 공연·전시 정보가 담긴 캘린더를 만들어 시민들의 집으로 매달 보내주는 것이다. 문화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는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추구했던 Hundertwasser 바서 하우스



빈의 영혼 슈테판 대성당

빈의 영혼 '슈테판 대성당'

빈의 랜드마크는 슈테판 대성당이다. 12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가 14세기에 고딕양식으로 개축되었고 내부는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진 혼합 양식의 독특한 건축물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내부가 소실되었지만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하였고 현재에도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당 일부가 공사 때문에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음에도 오랜 시간 시민들 곁을 지키며 빈의 흥망성쇠를 함께 겪어온 대성당의 위엄은 또렷하기만 하다. 존재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믿음과 안정을 주는 빈의 영혼, 슈테판 대성당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이 우리에게도 과연 있을까.

카드를 제공하며, 은퇴한 시민들에게도 문화바우처를 제공하여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국립오페라극장이나 빈 필하모니 공연장에 가면 저렴한 입석표도 많아서 학생이나 여행자도 부담 없이 세계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격식이 부담스럽다면 오페라극장 벽면에 설치된 야외스크린을 통해 오페라 공연을 실시간으로 봐도 좋다. 시민들이 거리에 아무렇게나 앉아 오페라를 관람하는 모습은 왠지 낯설고 부러운 풍경이다.

오스트리아에는 유흥문화가 없고 각종 상점들도 7시 이후 거의 문을 닫기 때문에 해가 지면 거리가 텅 빈다. 시민들은 텔레비전조차 잘 보

지 않는데, 그렇다고 관광객처럼 매일 게르트너 거리를 헤매며 쇼핑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이 궁금했다. 현지인에게 물어 보았더니 시민들의 일상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거나, 집에서 파티를 열거나, 공연장을 찾거나, 셋 중 하나라고 귀띔해주었다. 대부분의 시민이 1년 정기권을 구입하여 문화생활을 일상처럼 즐긴다는 것이다. 빈에만 50개의 공연장과 4개의 오페라극장 그리고 150개 이상의 미술관과 갤러리 등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도 또한 좋다.

큰 극장들이 잘츠부르크나 다른 나라 축제로 떠나는 7, 8월에는 '뮤직 필름페스티벌'이 열리는 빈 시청사로 가면 된다. 시청사 앞의 대형 야외 스크린을 통해 유명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의 공연 실황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고풍스러운 시청사는 축제 분위기로 달아 오르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서로 어울려 맥주를 마시며 흥겹게 공연을 관람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음악을 즐기고 어울리는 모습은 클래식한 멋으로 가득한 빈에 젊음과 자유의 이미지를 덧대어준다.



국립오페라극장 벽면 스크린을 통해 오페라 공연을 감상하는 빈 시민들



도나우 공원에 위치한 한인문화회관

빈에 올려 퍼진 아리랑

지난 6월 17일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에서 우리 민요 '아리랑'이 올려 퍼졌다. 먼 이국땅에서 듣는 아리랑은 더욱 처연하고 구슬프게 다가온다. 연주를 선보인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은 매칭펀드 지원을 받아 이번에 유럽무대에 진출했으며 한인문화회관과 빈 21구립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연주회를 개최했다. 두 번의 연주회에서 아이네는 해금주자 나리,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형수 등과 협연하여 우리 삶의 애환이 담긴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향의 봄, 타령모음곡 등 10여 곡을 동서양의 이색적인 퓨전연주로 선보였다. 박물관 공연에서는 국립오페라극장 단원인 바리톤 마무까가 출연해 환상적인 협연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교민은 물론 많은 현지인들이 연주를 들으며 한국 전통악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고 아리랑의 애절한 멜로디에 감동받기도 했다. 빈에서의 연주는 연주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음은 물론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교류에도 소중한 발자취로 남게 되었다.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의 '아리랑' 공연



공연 후 아이네플루트앙상블 김영 대표와 연주자들



한인문화회관의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기획하는 배수진 교수

도나우 공원의 아름다운 한인문화회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2,400여명에 이른다. 더없이 살기 좋은 나라지만 교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지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한인사회가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30여 억원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2014년 시의 협조를 받아 문화재 건물을 한인문화회관으로 재건립했다. 한인문화회관은 빈의 산소통이라 불리는 도나우 공원 안의 잔잔한 호숫가에 위치하고 있어 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현재 한인문화회관은 토요일마다 교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활동과 한국-오스트리아 문화교류 활동 그리고 한국고유의 문화를 오스트리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인문화회관의 특이한 점은 본국의 지원 없이 소재하는 지역인 22구의 결혼식장이나 전시장, 콘서트홀 등의 대관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빈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전미자 대표가 관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은 비엔나 프라이너 음대의 배수진 교수가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생활과 예술교류 활동이 금금해 배수진 교수를 찾아갔다.

유럽무대에 진출한 '춘향전'

한인문화회관은 설립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방면으로 눈부신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한국예술단체들을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사관에서 2015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코리아컬처페스티벌에도 참여하여 한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공연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2015년 빈 시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아 우리고

유의 문화콘텐츠인 '춘향전'을 마당극과 오페라가 결합된 형태로 각색하여 무대에 올렸는데, 한국적인 정서와 극적인 스토리가 현지인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춘향전'은 올해 10월 빈 시내에 위치한 무트 콘서트홀에서 재공연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클래식 본 고장에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콘텐츠가 인정받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EPILOGUE

이번 빈 예술기행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서 그 찬란했던 역사를 도도히 이어가고 있는 품격 있는 예술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빈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 도시와 자연의 조화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공유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술도시로 나아가려면 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꼭 공연장이나 전시회에 가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빌딩 앞 조형물을 바라보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관심은 시작된다. 어느 곳이나 문화예술의 손길이 닿아있고 관심을 가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은 낯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의 유연함을 키워주며 그것은 미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메세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술을 후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면, 기업과 예술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과 연결하는 만남의 광장 '엔지스'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 종착점이 아닐까.

메디치회

한국미술을 세계로

Writer 메세나 Photographer 메디치회



제4회 메디치상 수상자
황중명의 작품들

1. 네오이브
2. 네오아담

제3회 메디치상 수상자 장치길 작가의 뉴욕 전시회

지난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 뉴욕의 텐리 갤러리에서 장치길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 오픈식에 참석한 한 평론가는 장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 “아름답고 철학적이며, 전통적인 요소를 아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관람객들 또한 독특한 작품구성과 색채에 대한 감탄을 쏟아냈다. ‘통영 별곡’을 포함하여 장치길 작가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긴 23점의 작품들은 눈 높은 뉴욕커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즐거움이 되었다. 장치길 작가가 멀리 뉴욕에서 전시 소감을 전해왔다.

“아무런 인연도 없는 머나먼 미국, 그것도 세계 미술의 중심이라는 뉴욕 맨하탄에서 개인전을 한다는 것에 설렘과 더불어 두려움도 컸지만, 걱정과는 달리 관객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공부와 생각들을 잘 짚어내고, 그 개념들을 아름다운 컬러와 선면으로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시를 준비한 큐레이터도 수백 번도 더 찬사를 들은 것 같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오픈 날 이후로는 일정대로 각종 전시관,

뮤지엄, 아트페어 등 뉴욕 전역을 둘러보며 시각을 한층 넓힐 수 있었습니다. 미술 비평가를 만나 인터뷰도 했는데 그 역시 작품에 대한 좋은 인상을 이야기하며 평론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작가가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은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주어지면 좋겠어요. 제게 이러한 기회를 준 메디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메디치상 수상자에 대한 특전

이번 개인전은 장치길 작가가 2015년도 제3회 ‘메디치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에 대한 특전으로 이뤄졌다. 메디치회(회장 이재철)가 수여하는 메디치상은 창의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작가를 발굴·후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작가로 육성하고 아울러 문화예술 후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3년 창설되었다. 보통의 미술상 시상과 다른 점이라면 메디치회에서는 상금과 함께 해외전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2013년도 제1회 메디치상 수상자인 공태연 작가는 프랑스 트레 갤러리에서 개인전시를 열었고, 2014년도 제2회 수상자 홍민호 작가는 뉴욕

엘가위머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어 성황을 이뤘다.

해외전시 기회 제공은 단순히 작가의 경력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작가가 세계미술의 중심에서 전시활동을 함으로써, 세계미술의 흐름을 살피고 시야를 넓히며, 커넥션도 활발히 구축하는 등 세계적 작가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다.

긴장감 가득한 메디치상 공개심사의 현장

메디치회는 올해도 제4회 메디치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와 심사를 진행했다. 미국의 조나단굿맨, 로버트쿨시오 등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1차 심사가 있었고 이어, 7월 22일 창원대학교에서 2차 심사가 열렸다. 1차 심사에서 합격한 노춘석, 박미, 성유림, 황종명 네 명의 작가가 자신들 작품에 대한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펼쳤고, 참석자들의 질문 응답을 거쳐 메디치회 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메디치상을 수상한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마산 출신의 황종명 작가로서, 현재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12차례의 개인전과 더불어 발렌시아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 국립현대미술관 젊은모색展 선정작가, 제 4회 재유럽청년작가상 수상, 가나아트센터 파리국제예술관 레지던시 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이다. 1차 심사에 참여한 미국의 심사위원은 “황종명의 작품은 강력한 기술력으로 고도로 표현된 얼굴표정, 그리고 인물과 해골의 혼합이 손에 만져질 듯한 긴장감을 창조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2차 심사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공개 심사라는 것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창작의도, 표현기법 등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미술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질 좋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트 바젤을 향한 꿈

메디치회는 올해 (주)대호테크, 선린자모의원, (주)세영과 결연을 맺고 경남메세나 매칭펀드 지원을 받게 되면서 프로그램 선택의 폭과 혜택을 넓혔다. 이번 메디치상 수상자에게도 해외전시의 특전이 주어진다. 단, 작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에 진행해온 ‘뉴욕개인전’은 물론 ‘국제아트페어’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를 추가하여 총 3개의 선택지를 수상작가에게 줄 계획이다. 거기에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평론가의 평론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세 번의 사상과 해외전시를 거치며, 나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작가가 더 성장하여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얻은 방법들이다.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작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고민들은 메디치회를 낳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세 가지 중 특히 국제아트페어 참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아트페어들이 열리고 있는데,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행사일수록 참여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꾸준히 세계 각지의 다양한 아트페어에 참여하다보면 경력과 명성이 쌓여 ‘아트 바젤’이나 ‘아모리쇼’ 같은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70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시작된 아트 바젤은 전 세계 미술계를 움직이는 유수의 화랑과 그 화랑들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예술계의 올림픽’ 같은 행사다. 올봄에 열린 홍콩 아트바젤에서는 국제, 학교재, 아라리오 등 9개의 국내 화랑이 참여했으며 이우환, 전광영 등의 한국의 대가들이 참여하여

작가는 물론 한국 미술의 위상을 높였다. 메디치회가 현재 보여주는 열정과 비전을 보면, 바젤에서 메디치회의 이름을 걸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경남에서 탄생한 이 작은 단체가 세계 굴지의 미술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우리와 예술을 잇는 징검다리

최근 메디치회는 대중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예술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은 물론이고 철학, 정치, 사회 등 우리를 둘러싸는 문화 전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현명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문화예술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금씩 거리를 좁히고 싶어한다. 이것 또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가와 세계를 잇고, 대중과 예술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한 메디치회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문화 토양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을까.



1. 뉴욕전시회에서 장치길 작가
2. 7월 22일 창원대에서 열린 제4회 메디치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합천예총의 숲속의 작은 음악회

황강보다 깊고 푸른, 여섯 기업의 지역예술사랑

Writer 메세나 Photographer 합천예총

해가 저물자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는 연주자와 스텝들이 공연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무대를 마주보고 둥글게 펼쳐진 객석에는 가족과 친구들, 또 이웃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공원 뒤로 흐르는 황강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거나 울타리에 활짝 핀 장미향을 맡으며 낭만을 즐기는 이도 있다. 봄이 깊어가던 5월 25일 저녁, 합천예총의 '2016 숲속의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는 날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합천군민에게 단비와도 같은 연례문화행사다. 야외객석에 앉아 강과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봄바람을 느끼며 전국에서 찾아온 실력과 연주단체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흔치 않기 때문이다.

8시가 되자 3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공연이 시작되었다. TK국악퓨전연주단, 가수 에스텔, 통기타 음악여행, 우쿠렐레 유칼립투스, 황가람 색소폰 등 지역단체는 물론 전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단체들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90여 분의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은 아쉬움에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한 관객은 "통기타 공연 때 아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신기했다"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작은 음악회가 앞으로도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은 합천예총의 매칭펀드 결연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단체들에 비해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원 받은 결연기업이 무려 6개라는 점이다. 경남메세나에서 2015년부터 복수의 기업이 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을 적극 활용했다. 이번에 합천예총을 후원한 6개의 기업들은 그동안 꾸준히 숲속 음악회를 후원해오다가 매칭펀드 혜택을 받아 공연의 질을 더 높이고자 이번엔 한마음이 되어 모였다고 한다. 합천베스트샵, 미성건설, 탐광고사, 해인양돈, 우리밀제과, 세광한의원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합천읍내의 업체들이지만, 바로 옆집에 사는 친근한 이웃이기도 하다.

합천예총 김숙희 회장은 "욕심내지 않고 기업을 찾아다니며 메세나를 홍보하여 다행히 기업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어요. 기업 또한 메세나 금액이 크면 매년 참여하기가 부담 되지만 이렇게 복수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발전에 동참할 수 있어 지속적인 지원의지와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며 고마워 하더라구요"라며 메세나 참여계기를 설명했다.

지역 예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손길들이 모여 이렇게 알뜰한 음악회를 열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었으니 기업의 규모나 지원 금액은 이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덕분에 내년에도 메세나 사업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합천예총이 심시일반 정성을 모아 개최하는 이러한 작은 음악회들이 앞으로 합천군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망을 충만히 채워줄 것이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 된다.



거창합창단

감동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합창단

Writer 메세나 Photographer 거창합창단

거창합창단의 2016년도 정기공연이 지난 5월 10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단원들은 이날 공연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한다.

유료공연임에도 공연장의 720석을 꽉 채우고도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관객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거창문화센터 건립 이후로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티켓 판매를 통한 유료공연은 처음이었기에 모두들 기쁨과 함께 놀라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태훈 사무국장은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와 아림천사운동에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고 씩스러운 듯 말하지만, 창단된 지 3년밖에 안 된 신생단체가 유료공연 매진을 기록했다는 것은 단체의 실력은 물론 기획력이 특출하다는 뜻이다. 이날 공연에는 매칭펀드 결연기업인 (주)고려이노테크 허영식 대표 이사와 직원들도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거창이 고향인 허영식 대표는 평소 합창분야에 관심이 많아 거창에서 합창단이 생길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2013년 합창단 창단 이후로는 꾸준히 금전적 후원을 하며 단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거창은 교육의 도시이고 매년 높은 수준의 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문화의 고장이지만, 음악 특히 합창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허영식 대표를 비롯하여 노래를 좋아하는 거창 사람들이 모여 거창합창단을 만들었다. 혼성 50명으로 구성된 거창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있다. 단원들은 30대에서 60대사이의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거창 주민들로서, 직장인이 대부분이며 전업주부들도 일부 포함되어있다.

창단 이후 합창단은 각종 합창제 참가와 정기연주회 개최,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3년 제16회 전국환경노래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2014년 해군 군악대와 협연했으며 2015년 대구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의 빛나는 수상이력으로 거창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단원들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쁨과 활력을 느낀다고 전했다.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살림과 아이들의 양육을 맡는 주부로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좋은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해소할 수 있고, 하모니를 통해서 '힐링' 할 수 있어서 노래하는 시간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단원들이 많다.

일과 노래 모두 즐겁게 해내는 거창합창단 단원들은 하반기에도 바쁠 것 같다. 이번 공연을 위해 마산에서 달려와 준 결연기업 고려이노테크의 직원들과 함께 사내콘서트나 합창교육 등 교류활동을 하고 싶고, 또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나누고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Mecenat News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태도시 순천을 가다

2016 경남메세나포럼

Writer 메세나 Photographer 메세나

푸른 잎들이 살랑이는 싱그러운 봄날이다. 경남메세나에서 회원사 직원들과 떠나는 경남메세나포럼도 어느새 10회째를 맞았다. 올해 향하는 곳은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태도시 순천이다. 아침 일찍부터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은 떠나는 즐거움과 설렘 때문인지 표정들이 밝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랜드마크 '봉화언덕'



두 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는 오늘 하루를 함께 할 순천시 문화해설사가 먼저 와서 멀리서 온 손님들을 반가이 맞이한다. 입구에 붙여진 포스터들을 보며 그동안 즐겨보았던 드라마와 영화들이 이곳에서 많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덴의 동쪽', '제빵왕 김탁구', '자이언트', '늑대소년', '허삼관' 등 30여 작품이 넘는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7080세대들에게 향수를 자극하여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을 불러낸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주름이 드러난 얼굴이지만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모습이 여고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젊은 세대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 눈망울들이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골목은 은빛 머리카락 소녀와 생기발랄한 10대의 감쪽함도 함께 품어 안아 더욱 활기가 넘친다.

2016. 05. 28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산비탈 판자 집으로 오르자 고달팠던 지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 예전에 이렇게 살았더라 사진을 찍는 친구 옆에는 가난한 풍경도 정답게 앉아 있다.

1코스가 끝나고 기대하던 점심시간이 되었다. 초밥과 싱싱한 회를 비롯하여 밑반찬이 준비한 감칠맛 나는 남도의 한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니 사람들의 입이 즐겁다. 모두들 과식했는데 다음 일정이 순천만 국가정원이라 다행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덕분에 넉넉해진 기분으로 정원을 향했다.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은 면적 111만 2,000㎡에 다양한 주제 정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인공정원으로 23개 나라 83

개 정원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꿈의 다리, 한방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팽창해 가는 도심에서 순천만 습지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인공경관이지만 자연과 잘 어우러져 국토부에서 주관한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잔디밭에 마음껏 들어가 놀 수 있게 조성되어 있어 참 인상적이다. 곳곳에 소담스럽게 핀 수국과 장미를 비롯하여 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바람결에 묻어오는 장미향이 움츠려 있던 온 몸의 세포들을 깨워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문화해설사를 따라 여러 나라의 정원을 돌아보며 꽃과 나무들에 눈인사를 건네 본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와 태국 등 그 나라만의 전통과 개성이 잘 드러난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정원들 속에 있으니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 네덜



중국 정원



네덜란드 정원

란드 정원의 거대한 풍차 앞에서 여고생들이 까르르 웃으며 익살맞은 포즈를 취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쾌한 미소가 번진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랜드마크는 영국의 정원사이자 디자이너인 찰스 젱스가 제작한 '순천호수정원'이다. 순천지역의 지형과 물의 흐름을 축소하여 표현한 곳으로서 총 6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그중 가장 높은 봉화언덕을 오르기로 했다. 줄 지어 동산을 동그렇게 따라 올라가니 여유롭게 산책하는 기분이다. 16m 정상에 오르자 정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눈이 시원해진다.

세계 16개국의 14만여 어린이들의 그림을 수집하여 전시한 '꿈의 다리'를 지나 소형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에 탑승하니 발아래 보이는 순천 교외의 풍경들이 평화롭기만 하다. 확 트인 시야에 들어오는 순천만을 구경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순천문학관에 도착했다.

초가지붕 몇 채가 정겹게 자리한 곳에서 먼저 '오세암'의 작가 정채봉 선생의 문학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선생의 생애와 작품세계, 친필원고와 사진들은 물론 주요작품들을 아끼자기하게 그림으로 담아놓아 순수

한 동심에 젖어들게 했다.

이어 '무진기행' 등으로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찬사와 함께 60년대 문학계를 풍미했던 김승옥 선생의 문학관을 둘러보며 한국현대문학이 화려하게 꽃 피던 순간을 만끽했다. 마침 김승옥 선생이 문학관에 있어서 사인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살아있는 작가의 문학관이 존재하는 것도 놀라운데, 직접 만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순천문학관에서부터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 습지를 볼 수 있다. 순천만습지생태공원은 국제적인 멸종위기 희귀철새의 보금자리이자 다양한 식생을 자랑하는 자연생태의 보고로서 스카이큐브를 통해 정원과 연결되어 있어 당일코스도 함께 가볼만 하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코스인 낙안읍성으로 향했다. 즐겁고 편안하다 하여 낙안읍성이라 불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계획도시로서,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초가지붕으로 이루어진 민가들을 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600년 전 조선시대로 온 듯하다. 성 안에는 280여동의 초가지붕과 객사, 관아 등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220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



낙안읍성

2016. 05. 28



순천 문학관에서 현대문학의 거장 김승옥 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예술인들도 더불어 살고 있어 한국문화체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 더욱 아름답다. 도심에서 빨리 달리는 차 속도만큼 치열하게 살다가 한적한 시골집을 기웃거리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그림보다 더 예쁜 풍경을 간직하고 있어 눈이 즐거운 남도 여행이다.

관아에 들르자 의자를 나르고 앰프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지역 예술인들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연다고 한다. 판소리 송만갑 명창과 가야금병창 오태석 명인을 배출한 예인의 마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곽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쉬고 있는데 초가들 위로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순천을 떠났다.

지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순천시와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로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며 이제 순천은 도시 전체가 국가정원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다. 멀지 않은 거리에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문화의 거리, 선암사, 송광사 등 볼거리들이 풍부하며 깊고 풍부한 맛이 일품인 남도한정식은 가격 또한 합리적이다.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원의 도시 순천, 우리 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

순천 여행 코스추천

1일

순천드라마촬영장→순천만국가정원→
순천문학관→낙안읍성

1박 2일

순천드라마촬영장→순천만국가정원→
순천문학관→순천만습지(1박)→
낙안읍성→선암사

참고자료

tour.suncheon.go.kr (관광순천)

www.scgardens.or.kr (순천만국가정원)

빛의 세상에서 펼쳐진 메세나 힐링음악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Writer 이희경 Photographer 구분수

2006년에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양질의 풍부한 콘텐츠와 탄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잡았으며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남메세나는 고성 엑스포 현장을 찾아가 ‘찾아가는 메세나’ 공연을 펼쳐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5월이 시작되는 첫 주말에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찾았다. 이번 행사는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고성 당항포 관광지 일대에서 열린다. 넓은 엑스포장은 주말이라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붐빈다. 설치되어 있는 공룡들은 만개한 톨립 꽃과 신록으로 어우러진 1억 년 전 그들의 동산에서 노니는 듯하다. 유모차 안에서 공룡을 보며 방긋방긋 웃는 아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걷는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에도 함박꽃이 핀다. 엑스포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에서 행복함을 읽을 수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엑스포장에 빛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경관들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무리를 지어 뛰어 다니며 사진을 찍는 청소년도 있고, 젊은 연인들이 반짝이는 공룡을 보고 감탄사를 터트리며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갑자기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그곳으로 가니 공룡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커다



2016. 05. 14

란 공룡이 춤을 추고 움직이는 모습에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반짝 빛난다.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떼를 지어 있어 퍼레이드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를 목마 태우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젊은 아빠들의 모습이 더욱 멋지게 보인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경남메세나협회가 준비한 ‘찾아가는 메세나-힐링콘서트’를 보기 위해 상설무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음악회는 엑스포장에 연둣빛 잎처럼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전한다. CWNU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성악가들의 풍부한 성량과 고음으로 펼쳐내는 아름답고 애절한 목소리는 밤하늘 별빛과 맞닿아 환상적이다. 흔히 사람의 목소리를 가리켜 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했던가!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환상의 호흡으로 뿜어져 나오는 성악가의 열창과 연주에 전율이 느껴진다.

인디오와 아프리카인,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과 애환을 경쾌하게 승화시킨 라틴음악과 무용의 콜라보로 박상용, 이유란의 안무가 이어지자 조용하던 객석 곳곳에서 미소가 번져간다. 그들의 유연하고 경쾌한 몸짓은 엄마 품에 안긴 애기까지 엉덩이를 들썩이게 한다. 신들린 듯 두드리는 드럼의 독주에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로 콘서트는 정점을 찍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펼쳐진 오케스트라와 신유식의 색소폰 협연에서는 케니지의 ‘Going home’, 진주의 ‘난 괜찮아’,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가 연주되었다. 색소포니스트 신유식은 흥에 취해 어느새 객석으로 들어와 화려한 기교와 퍼포먼스로 관객과 소통하는 신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제각기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음악으로 박수와 떼창을 하며 모두 하나로 어우러진다. 앵콜 무대인 ‘내 나이가 어때서’와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자 대 여섯살 아이들이 온 몸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표정이 귀엽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들도 함께하여 관중석은 축제의 분위기로 무르익었다.

음악회는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인 것 같다. 봄밤. 감동과 예술의 향취를 만끽한 가슴 훈훈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Mecenat News Brief

2016. 02. 19

2016 경남메세나 정기총회

경남메세나협회는 2월 19일 호텔인터내셔널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의 2015년 사업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 확정 및 임원선임이 이루어졌다.

협회는 사업보고를 통해 2015년 기업과 예술단체 111개 팀 결연을 달성하여 3년 연속 100개 팀 결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매칭펀드 결연이 2008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창원시에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결연사업에 참여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 덧붙였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아 '기업사랑 메세나 음악회' 등 신규사업을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18개 시·군 예술향유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도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감사보고와 결산승인에 이어 경남메세나의 올해 사업계획 발표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결연사업 참여기준을 넓혀 기업과 예술단체 120개 팀 결연을 목표로 세웠으며, 전년도에 이어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연구조사 및 국내외 기관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메세나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이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원선임에서는 경남은행 손교덕 행장이 제 7대 경남메세나협회장으로 합의추대 되었다. 손교덕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의 경제와 예술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회장인 ㈜무학 최재호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신임 부회장으로 ㈜무학 강민철 사장이 선임됐고, 서일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이사로 교체선임되었다. 임기가 만료되는 우수AMS㈜ 전종인 대표이사 등 총 9명의 임원이 재선임 되어 앞으로 메세나 선도 역할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무학 최재호 회장은 메세나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문으로 선임돼 앞으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1명, 감사 2명, 이사 15명, 고문 4명으로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먼저 식전공연으로 테너 최요섭과 소프라노 김신혜가 무대에 올라 오페라 '사랑의 묘약' 명장면을 경쾌하게 연기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식후무대에서는 경남솔로이스츠앙상블이 감미로운 현악 연주를 선보여 경남메세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2016. 04. 21 / 06. 17

경남메세나협회 예술단체 워크숍 & 임원 간담회

01. 예술단체 워크숍
02. 임원간담회전 축하공연
03. 임원진 회의 모습



예술단체 워크숍

경남메세나협회는 4월 21일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2016년도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2016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4월 1일에 열린 2016년도 매칭펀드 사업 제1차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예술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자금집행, 정산을 돕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은 모범적 교류활동을 펼쳐온 기업과 예술단체의 사례발표로 시작되었다. the큰병원과 경남전업미술가협회에서 바람직한 메세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경남도 문화예술과에서 지방보조금 사용지침에 관한 강의를 했고, 협회 사무국에서 매칭펀드 사업안내와 지원금 사용지침, 정산교육 등 메세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 한동진 전무는 “올해 메세나 역대 최대의 결연성과를 거뒀는데, 기업 최저지원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고, 경남도와 함께 매칭펀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인 것 같다”며, “예술단체 지원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기업과의 교류협력 강화유도를 통해 메세나 사업이 지속적,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메세나가 중개자이자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도내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안내, 자원조성 및 정산보고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통해 단체 운영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임원간담회

6월 17일 마산 창동 금강미술관에서 경남메세나협회 '2016년 임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손교덕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임원간담회에서는 사업진행 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매칭펀드 자금확대, 대기업 참여, 예술 활동 모니터링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임원들은 하반기에도 지역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메세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협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메세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기획 사업들을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축하무대에서는 지역 국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퓨전국악단체 '우리랑'이 출연, 'fly me to the moon' '뱃노래' 등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흥겹게 이끌었다.

봄소식처럼 반가운, 메세나의 나눔공연

예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도내 곳곳을 찾아가 음악으로 기쁨과 감동을 나누는 경남메세나 문화나눔사업 '행복한 나눔 공연'의 첫 공연이 지난 4월 2일 마산 진전면 평암리 미천마을 산자락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아름다운 학원'에서 열렸다.



마을을 감싸는 서복산이 연녹색으로 싱그럽게 물들어가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쟁쟁재쟁-”

팽과리 소리가 신명나게 울려 퍼지며 고요하던 산속의 아침을 깨웠다. 이날 공연을 주관한 박태식 국악예술단은 시설 앞뜰에서 흠날리는 벚꽃을 무대 삼아 모듬북, 사물놀이, 북춤 등 다채로운 공연들을 선보였다. 국악기들의 경쾌한 소리와 화려한 춤사위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공연이 끝나고 아쉬워하던 시간도 잠시, 예술단 단원들이 관객들에게 트럭 한 가득 싣고 온 장구, 북, 징, 팽과리 등 국악기들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평소 문화예술 활동을 거의 접할 수 없는 거주인들을 위해 사물놀이 체험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단원들이 연주방법을 알려주자, 거주인들은 악기채를 아무지게 쥔 채 신나게 악기를 두드리고 춤을 쳤다. 저마다 소리는 다르지만 기쁨과 흥분으로 하나 되어 앞뜰은 어느새 큰 무대가 되었다.

공연에 참여한 한 사회복지사는 “이곳 거주인들은 중증발달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음악을 느끼고 즐기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것 같다”며 공연에 만족을 표했다.

비록 거주인들이 이날 공연을 금세 잊어버릴 지도 모르지만, 온 마음과 감각을 열어 음악을 즐기고 소통하며 실컷 웃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연에 참여한 모두에게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아름다운 학원’에서부터 시작된 문화나눔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공연으로 이어졌다. 4월 28일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에서 남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공연을 열었고, 5월 7일에는 마산 봉덕초등학교에서, 13일에는 의령 북지마을에서 국악과 대중음악으로 풍성하게 꾸며진 퓨전국악공연을 열었다. 경남메세나의 문화나눔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기업과 예술, 결연의 현장을 찾다



캠코 경남본부+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융에 예술의 온기를 불어넣다

캠코 경남본부(본부장 문영기)와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인호)의 결연식이 5월 12일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열렸다. 두 기관은 앞으로 자금지원과 공연지원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나감, 예술의 따스한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다. 최근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캠코는 예술단체와 결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역문화예술 공헌활동을 펼치게 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술지원과 문화교류활동으로 지역사회 행복지수를 높여갈 계획이다.

㈜오엔이+김해미술협회

김해미술의 키다리 아저씨

6월 8일 김해미술협회 사무국에서 ㈜오엔이(대표이사 이종호)와 김해미술협회(회장 윤병성)가 결연을 맺고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오엔이는 평소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어려운 여건의 미술인들을 후원하며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왔다. 이번 결연을 통해 김해미술협회는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중심지역으로서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9회 전국공모 김해미술대전'을 기획하여 6월부터 진행 중이다. 또한 사내 그림전시, 전시관람 초대, 공장 벽화그리기, 미술교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고성오광대보존회

경남의 대표 향토기업과 전통예술단체가 만나다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이사장 최재호)과 고성오광대보존회(회장 이윤석)가 6월 20일 '굿데이 미술관'에서 결연을 맺고, 고성의 문화를 함께 꽃피워나가기로 했다. 경남 전통예술의 자부심 고성오광대는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800여 차례의 국내외 공연에 참가하며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매년 신진작가 양성을 위한 전국공모 '좋은데이 미술대전'과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좋은세상 만들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함은 많은 예술행사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사천무형문화재단연합회

KAI, 사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나서다

7월 12일 사천시 전통문화전수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나눔봉사단(단장 하성용)과 사천무형문화재단연합회(회장 한우성)가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월 나눔봉사단을 창단하여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 결연은 예술단체들의 열악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방법을 찾던 나눔봉사단의 제의로 이뤄졌으며, 단체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매달 1회 나눔봉사단은 구계서원, 선진리성, 사천읍성 등 사천의 주요유형문화재를 찾아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남메세나 회원사

GYEONGNAM
MECENAT MEMBERS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은행	(주)구구	미조종합건설(주)	영광산업	(주)코앞건설
경남오페라단	(주)국제전기	미즈맘 여성병원	(주)영남엘피씨	(주)코텍
광득종합건설(주)	그린산업(주)	범무법인 미래로	영민테크	쿠쿠홀시스(주)
농협경남본부	그림갤러리(주)	(주)베스트엔드베스트	(주)영신화공	태광실업(주)
(주)무학	(합자)금강전기공업사	(주)보강기업	(주)영일정공	(주)태완정공
(주)센트랄	금강중기	(주)부경	(주)영진테크	(주)태현메가텍
우수AMS(주)	금성이노텍(주)	부산교통(주)	(주)영창기업	(주)포스텍
유전공업(주)	(주)금술개발	(주)부일이엔씨	에인여성병원	풀만호텔
(주)인산가	(주)기산산업	(주)부평디엔피	(주)오곡산업	피케이밸브(주)
임경숙	김선경외과의원	(주)복성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하이에어코리아(주)
(주)한국아나세	김순태치과의원	(주)사릭	(주)옥산아이엔티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청호산업개발(주)	(유)김해공영	(주)산호수출포장	원 한의원	한국소니전자(주)
(주)ONE	낙우산업(주)	(주)삼보산업	원광산업석재	한국자산관리공사경남 본부
경원벤처(주)	남명산업개발(주)	삼우금속공업(주)	(주)웰템	(주)한국자연환경
리베라컨벤션	남양매직(주)	삼원동관(주)	유니온엔지니어링	(주)한국정기공업(주)
범한산업(주)	(주)네오씨티알	삼원테크(주)	유림건설(주)	한국제강(주)
산골농장	대경건설(주)	(주)삼전건설	(주)유림철강	한국태양유전(주)
서일준	(주)대길티에프	삼정기업	윤한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신화철강(주)	(주)대동주택	(주)삼정터빈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원광종합건설(주)	대방스파샬스탈(주)	삼흥열처리	의료법인성림의료재단	해성메탈(주)
김도기	대선주조(주)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해수종합건설(주)
한국민예총경남지회	대신금속(주)	(유)상화도장개발	사보이호텔	현대공업(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합)대신전기공업사	(주)서영시스템	(주)이앤티	(주)현대기업
한림건설(주)	대한전선전기(주)	선린자모의원	(주)이우	(주)혜동
(주)현대단조	(주)대호엠엠아이	성부가스산업(주)	인신죽염(주)	호성
화성G&I(주)	(주)대호테크	(주)성우	인화정공(주)	(주)호텔인터내셔널
(주)화인테크놀리지	(주)덕광중공업	(주)성환금속	일림나노텍(주)	흥기종합건설(주)
the큰병원	(주)동구기업	(주)세복	(주)장생도라지	(주)화영
가야BBS(주)	동명다이아몬드	세아창원특수강	(주)장성E.P.S	화영철강(주)
(주)강민종합건설	동양특수금속(주)	(주)세양정공	(주)장한	화이트치과
강산기술검사	(주)동오프랜지	(주)세호테크	정남종합건설(주)	화일종합건설(주)
거제레미콘(주)	(주)동은화학	승진기계(주)	(주)정문애드테크	(주)화영
거제시문화예술회관	동인하이텍(주)	시영건설(주)	주용테크	(주)화인에이티씨
거제컨벤션웨딩부페	동환산업(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중앙건설(주)	(주)팬코리아중공업
경남개발공사	두남화학	신대양(주)	(주)중앙금속	(주)환웅정공
경남스틸(주)	디씨엠(주)	신동방산업(주)	중원종합건설(주)	흥일기업(주)
경남신문	디케이락(주)	신요프드시스템(주)	(주)지에스비	PS엔터테인먼트
경남자동차판매(주)	리온산업개발(주)	신창기계	창원상공회의소	STX조선해양(주)
경원여객자동차(주)	마산정안과	(주)신한물산	(주)창원자동차학원	STX엔진(주)
(주)경한코리아	명제한의원	(주)세노텍	청아의료재단	
(주)고구려	몽고식품(주)	(주)애드테크	초심공업(주)	
(주)고려철강	무림페이퍼(주)	(주)에스에이치아이	최익수의원	
고운치과병원	문운수치과의원	에이스브이	쥬고쿠삼화페인트(주)	
광신기계공업(주)	미르치과의원	(주)에이스코트	(주)케이씨	

신입회원사

회사	대표자명
현대공업(주)	진종신
경남개발공사	조진래
범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주)대호테크	정영화
풀만 엠베서더 창원	최경화

(주)코앞건설	박범주
몽고식품(주)	김현승
(주)에이스코트	최철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문영기
화영철강(주)	김장희
(주)대길티에프	박경철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 & Business

결연사업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공간, 티켓구매, 직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직원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단체워크숍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문화소외 이웃을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관람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 사업 Development

홍보지 '경남메세나 발간' 연2회 발간하여 메세나협회 사업소개 및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경남 18개시·군을 찾아가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연간 메세나 활동을 정리하고, 예술후원과 교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확대를 위해 2015년 3월 첫 시행한 예술후원 촉진 사업으로서, 경남메세나협회가 전국 3대 매개단체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메세나음악회 지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예술의 대중화와 예술친화기업 조성에 기여합니다

어울림과 소통전 기업과 미술인이 매칭을 하여 기업의 이미지 또는 철학을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열고, 전시 후 작품을 기업에 기증합니다.

회원사 가입 안내

경남메세나 회원사가 되어 문화예술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서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손비인정, 개인은 연간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해드립니다. 회원사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gnmecenat.or.kr - 메세나가족 - 회원사가 되시면

(주)코앞건설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코앞건설

환경을 아름답게 생활을 풍요롭게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에너지 자원 재활용 산업의
선두 주자!

DOWRING
ENERGY

다우링에너지 처리대상 지정 폐기물

- 폐유, 폐유활유, 폐절연유, 정제 연료유로 재생가능한 액상 폐유
- 폐유 기용제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메탄올 톨루엔, 기실렌 등

좋은세상 만들기,
좋은데이가 함께합니다

청춘의 꿈을 응원합니다!

좋은데이 미술대전은 좋은데이나눔재단이
순수미술의 발전과 미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BNK경남은행 창립 46주년

Yes! BNK

BNK금융그룹 모델 유준상

BNK경남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복잡한 자동이체 변경,
이제 간편하게 BNK경남은행에서 하세요!

BNK경남은행은
지역민과 고객의 편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BNK 경남은행

Mecenat is Bridge.

Mecenat is Future.

Mecenat is Magic

기업, 예술에 물들다!

기업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